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Victimization by Peers in Early Adolescents: Relationships to Parent Attachment, Peer Rejection, and Friendship

도 현 심**
Doh, Hyun S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ttachment, peer rejection, and friendship in 768 eighth grade students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early adolescence. The subjects reported on fa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and victimization. Victimization was also rated by peers and teachers. The subjects were assessed on peer rejection and friendship(number of friends and presence of a best frie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1)Father attachment and mother attachment were negatively related to self-reported victimization; (2)Peer rejec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victimization; (3)The number of friends was negatively related to victimization rated by peers, and victimization rated by peers varied as a function of the presence of a best friend only for girls; (4)The relation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victimization was not mediated by peer rejection or friendship, which indicated that parent attachment had a direct influence on victimization.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 이화여대 소비자 · 인간발달학과 조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아동이 빈번하게 또래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으로 정의되며(Perry, Kusel, & Perry, 1988), 강한 아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또래를 괴롭히는 행동의 결과로 초래된다(Olweus, 1991). 1990년 이후로 빈번하게 보고되는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최근 들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내의 경우 특히 중·고등학교내의 또래 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주제로 한 국외 연구는 1970년대 말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Olweus, 1978), 1980년대 말에 이르러는 영국과 미국에 이어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되어 최근에 이르고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라는 문제가 전 세계에 걸쳐 매우 오래된 현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최근에야 시작되었다는 점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아동의 여러 발달적 측면이 그렇듯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 역시 부모 - 자녀관계와 관련시켜 접근할 수 있다. 이전의 어린 시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 역시 부모 - 자녀관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의 애착은 청소년이 부모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행동적인 면을 내포한다. 아동 중기를 넘어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개인의 내적 작업 모델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감, 상호존중감, 유대감을 갖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Armsden & Greenberg, 1987). 즉, 생애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애착은 전 생애적으로 지속되며, 청소년기에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애착감정은 청소년의 복지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Greenberg, Siegel, & Leitch, 1982).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국외 연구는 아동초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불안정 애착의 역사를 가진 아동들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Troy와 Sroufe(1987)를 제외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국내의 경우, 임경원(1997)은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의 분위기와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임경원의 연구는 기존 연구가 매우 드문 상태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으나,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차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관계간의 밀접한 관련성(Elicker, Englund, & Sroufe, 1992)에 근거할 때, 부모와 불안정적 애착관계를 가지거나 혹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기회가 부족하며 신뢰감이 적고 높은 소원감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그들 스스로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발달적 과업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가 쉬울 것이다. 실제로,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

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Ryan, Stiller, & Lynch, 1994). 또한 기능적인 가족의 청소년들은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요구 및 기회와 같은 도전적인 영역들을 탐색하는 데 그들의 부모를 여전히 안전 기지로 삼는다는 점(Colin, 1996)에 근거할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은 그들의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나아가 또래관계가 주를 차지하는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은 부적응적 경험과도 유의한 관계를 가지리라 가정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 내적 작업모델을 가지기가 쉽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하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기가 쉬우리라 예측된다.

한편, 또래집단 내에서 경험되는 특성인 만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주로 또래관계와 관련시켜 연구되어오고 있다. 또래관계적 측면에서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는 사회적 지위나 우정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위는 또래에게 수용 또는 거부되는 정도에 따라 아동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한다. 특히 또래 집단에서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알려진 또래 거부는 싫어하는 아이로 지적되는 것과 같이 또래들로부터 부정적 지명을 많이 받는 경우이다. 또래 거부는 그 경험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그들의 학교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또래 거부가 문제시되는 것은, 거부되는 청소년들은 또래들에 의해 가치절되어 공격적인 또래들이 그들의 지위를 학대의 대상으로 정당화시킨다는 점이다(Hodges, Malone, & Perry, 1997). Perry와 동료들(1988)에서도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또래 수용보다 또래 거부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어, 거부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는 인기아나 무시아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았다. 결국 또래 거부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주변의 많은 또래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쉽고, 나아가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공격을 당하는 하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또래 거부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보고되어, 또래들로부터 거부되는 아동들은 아동 중기 동안 또래들로부터 만성적으로 괴롭힘을 경험하였다(Hodges et al., 1997; Hodges & Perry, 1999; Perry et al., 1988). 국내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에 재학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또래 거부는 아동이 또래로부터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하는 주요한 특성변인에 포함되었다(이점숙 · 유안진, 1999).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태로서, 본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또래관계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은 최근 들어 아동의 우정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심은 우정관계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Berndt & Ladd, 1989). 이러한 전제는 또한 부모나 교사와 같은 사회화의 역할을 맡은 다른 사람의 기여 이외에 친구가 아동의 발달에 상당하고 독특한 기여를 한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서의 검증을 거친 사회적 기술을 요구하므로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적 기술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llivan, 1953). 따라서 친구가 있는 아동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며, 나아가 또래관계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은 부적응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감소하리라고 가정된다. 이는 또한 우정관계를 통해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아동에게 친한 친구들이 있을 때, 그들은 학교생활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기가 쉽다. 실제로 아동은 또래 집단을 통해 또래와 빈번한 접촉을 하고 공통적인 활동을 하며 대인간 연결감(a sense of interpersonal connectness)을 경험함으로써 학급에서의 생활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Kinderman, 199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해아들은 부정적 학교생활을 한다는 연구결과(Kochenderfer & Ladd, 1996)를 통해, 그들은 일반적인 청소년들과는 다른 우정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Rizzo, 1989)에서 지지되어, 지원적인 친구는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공격적인 아동은 공격에 의해 희생되는 아동의 친구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리라는 두려움 없이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친구가 없는 아동에 대한 공격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밝혀져, 친구가 없는 아동은 친구가 있는 아동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Bukowski, Newcomb, & Hartup, 1996; Malone & Perry, 1995). 주로 아동중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경우에도 유사하리라 가정되므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간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에 대한 애착을 비롯한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밀접한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주로 또래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 반면, 부모-자녀관계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또래관계가 주를 차지하는 청소년기에도 부모-자녀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고는 알려지지만, 이러한 변인들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는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도현심(1999)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가운데 하나인 외로움을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외로움간의 관계에서 중재적 역할을 함으로써,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은 경우라도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는 여학생은 외로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또래관계 및 경험이 차지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일례가 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기가 되면서 또래집단은 활동, 영향력, 그리고 지지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청소년기 연구결과(Savin-Williams & Berndt, 1990)에 근거할 때,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양자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에 들어 점차 강조되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부모-자녀관계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또래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에 대한 애

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상호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만,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 같은 또래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때는 직접적이기보다는 이러한 변인들을 통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리라 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와 우정관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 - 자녀관계와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외로움에 관해 살펴본 박선영과 도현심(1998)에서도 밝혀졌듯이, 외로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결과는 남아에 비해 여아는 가족지향적으로 양육되기 쉽고 따라서 부모 - 자녀관계가 보다 더 긴밀하고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국외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한 모 - 자녀 상호작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는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Finnegan, Hodges, & Perry, 1998),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남아에게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여아에게는 친교를 강조하는 것과 같이 성에 특징적인 특성의 발달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의 발달을 방해하는 자녀양육행동으로 인해 아동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우정관계에 있어서도 비교적 분명한 성차가 발견되어, 남학생은 다수로 이루어진 또래집단의 소속 여부를 중시하는 반면, 여학생은 소수의 몇몇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Inderbitzen-Pisaruk, Clark, & Solano, 1992). 따라서 청소년의 행동을 부모 - 자녀관계와 또래관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에 따른 차이 외에도, 부모 - 자녀관계는 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있어, 청소년기의 모 - 자녀 관계는 부 - 자녀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우며, 특히 모녀관계는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고된다 (Gjerde, 1986; Hauser, Book, Houlihan, Powers, Weiss-Perry, Follansbee, Jacobson, & Noom, 1987).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분리하여 조사·분석할 뿐만 아니라, 연구문제들을 살펴보는 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가 청소년이 경험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와 우정관계가 각각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에 대한 애착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2) 또래 거부와 우정관계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각각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3) 또래 거부와 우정관계는 부모에 대한 애착

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매개하 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2개 중학교의 2학년에 재학중인 768명의 남녀학생들(남학생: 372명, 여학생: 396명)이다. 기존의 국외 연구에서 이 연령층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Olweus, 1991), 또한 국내에서도 이 연령층의 학교 폭력이 종종 보도되는 점에 근거하여 이 연령층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도구

1) 또래에 의한 괴롭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Perry와 동료들(1988)의 척도를 번안한 도현심(1999)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iggins와 Winder(1961)가 개발한 Peer Nomination Inventory(PNI)를 토대로 수정된 것으로서, 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를 비롯하여 또래평가와 교사평가에 의해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서는,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한다," "다른 아이들로부터 비웃는 식의 별명을 자주 듣는다," "다른 아이들에게서 맞거나 밀린다" 등을 들 수 있다. 자기보고용과 교사평가용은 Likert식 4점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서, Cronbach's α에 의한 신뢰도는 각각 .85와 .86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2>).

또래평가용의 경우, 동성의 급우 명단을 연구대상 각각에게 배부한 후 각 문항에서 제시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급우들의 이름 아래 표시(V)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대상이 그 문항의 특성에 해당된다고 표시한 또래수의 백분율을 각 문항별로 계산한 후, 각 문항의 백분율을 합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자기보고, 또래평가, 그리고 교사평가간의 상관관계는 .22~.36정도의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의 평가자간 상관관계 (N=768)

	자기보고	또래평가	교사평가
자기보고	-		
또래평가	.36***	-	
교사평가	.22***	.35**	-

** p < .01 *** p < .001

2)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개발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 부모에 대한 애착 문항들을 번안한 도현심(1999)의 척도를 사용하되, Armsden과 동료들(1991)이 사용한 개정판(IPPA-R)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2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IPPA-R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IPPA와 차이가 있다: (1)'부모에 대한 애착' 대신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구분하여 조사됨; (2)신뢰감, 의사소통, 소원감 등의 세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됨; (3)28문항 가운데 3문항을 삭제하

여 문항수가 25문항으로 감소됨; (4)신뢰감과 의사소통 요인의 합산 점수에서 소원감 요인의 점수를 감하여 계산되던 애착점수의 산출방식이 부정적인 표현의 문항들을 역산한 후 모든 문항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화됨.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5점 척도를 4점 척도화 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아버지(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준다,"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아버지(어머니)는 바로 알아차린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이해해준다" 등이 포함된다. IPPA(-R)는 초기 청소년기에서 후기 청소년기, 즉 중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온 애착 척도들 가운데 하나로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척도의 Cronbach's α는 개정판의 경우 각각 .89와 .87이었으며, 본 연구의 경우는 .89와 .93이었다(<표 2>).

〈표 2〉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

척 도	문항수	신뢰도
아버지에 대한 애착	25	.89
어머니에 대한 애착	25	.93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	7	.85
또래에 의한 괴롭힘(교사평가)	7	.86

3) 또래 거부 및 우정

또래 거부는 Coie와 Dodge(1983)의 사회 측정법(Sociometr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연구대상자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동성의 급우를 세 명씩 적도록 지시하여 부정적 지명의 숫자를 산출하였다. 또래 거부 점수는 동성의 급우들로부터 부정적 지명을 받은 숫자의 백분율로 계산되었다(예: 20명의 급우들 가운데 5명이 한 연구대상자에 대해 부정적 지명을 한다면, 그 대상자의 또래 거부 점수는 25점이다). 우정관계는, Ladd, Kochenderfer와 Coleman (1997)에 기초하여, 친구의 수와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의해 측정하였다. 각 아동에게 좋아하는 동성의 급우들의 이름을 세 명씩 적도록 지시한 후, 이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친구 한 명의 이름에 표시하게 한다. 친구수는 아동들이 서로 친한 친구로 지적한 경우의 숫자를 의미하며, 각 아동은 0~3명의 친구수를 가진다(예를 들면, A, B, C, D라는 아동들이 있을 때 A는 B, C, D를 친한 친구라고 하였으나 B, C, D 가운데 B만이 A를 친한 친구라고 적는다면 A의 친구수는 1명이 된다.) 가장 친한 친구 유무 역시 친구수와 마찬가지로 계산하여, 서로 가장 친한 친구라고 표시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 된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1999년 2월 중순에 두 군데 학교의 각각 9학급과 7학급에서 실시되었다. 8명의 훈련된 조사원들이 각 교실에 들어가 질문지를 직접 조사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학생들이 질문지에 응답을 하는 데는 20~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교사용 질문지는 교사가 편리한 시간에 응답하도록 부탁한 후, 1주일 후에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한 명의 교사가 평가한 학생수는 50명 정도이었다. 회수된 810부의 질문지 가운데 무응답이 많은 42부의 질문지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768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혹은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예비분석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먼저 본 연구의 관련 변인들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 혹은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남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점수가 여학생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t=2.81, p< .01).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우정관계의 경우, 친구수는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수가 더 많았으나(t=-5.18, p< .001),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x^2=3.22 p>.05). 또한 또래 거부에 있어서도 유의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t=1.80, p>.05).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있어서는 자기보고, 또래평가 및 교사평가 모두에서 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자기보고, 또래평가 및 교사평가, 각각 t=5.80, p< .001, t=5.32, p<.001, t=5.15, p<.001)(<표 3>).

2.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로 구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학생 모두 자기보고의 경우에서만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남학생: r=-.21, p< .01; 여학생: r=-.25, p<.01),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남학생: r=-.13, p<.05; 여학생: r=-.25, p<.01). 즉, 남녀학생들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덜 당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남녀학생 모두 부모에 대한 애착은 또래평가와 교사평가를 통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4>).

3.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혹은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또래 거부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남학생의 경우, 또래 거부는 또래평가 및 교사평가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유의하게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나(또래평

〈표 3〉 성별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N=372)		여(N=396)		
	M	SD	M	SD	t
애 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69.43	11.60	66.97	12.57	2.81**
어머니에 대한 애착	71.55	9.34	71.81	11.75	-.34
또래 거부	5.29	9.32	4.26	6.06	1.78
우정관계					
친구수	1.34	1.03	1.74	1.04	-5.18***
또래에 의한 괴롭힘					
자기보고	1.84	.51	1.64	.45	5.80***
또래평가	40.49	71.24	17.26	46.31	5.32***
교사평가	1.69	.56	1.50	.48	5.15***

** p< .01 *** p < .001

〈표 4〉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상관관계

(남: 372; 여: 396)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에 의한 괴롭힘(남/여)		
	자기보고	또래평가	교사평가
아버지에 대한 애착	-.21** / -.25**	.02 / -.02	-.04 / -.01
어머니에 대한 애착	-.13* / -.25**	-.02 / -.02	-.07 / -.02

* p < .05 ** p < .01

가: r=.24, p<.01; 교사평가: r=.16, p<.01),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또래 거부는 자기보고, 또래평가 및 교사평가 각각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자기보고: r=.16, p<.01; 또래평가: r=.46, p<.01; 교사평가: r=.22 p<.01). 이러한 결과는 또래로부터 부정적 지명을 많이 받을수록 남녀학생 모두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나타낸다(<표 5>).

2)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남녀학생 모두 친구수는 또래평가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어(남학생: r=-.24, p<.01; 여학생: r=

〈표 5〉 또래 거부 및 친구수와 남녀학생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상관관계

(남: 372; 여: 396)

	또래에 의한 괴롭힘(남/여)		
	자기보고	또래평가	교사평가
또래 거부	.09 / .16**	.24** / .46**	.16** / .22**
친구수	-.08 / -.05	-.24** / -.27**	-.03 / -.08

** p < .01

-.27, p<.01), 친구가 많을수록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친구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반면에, 남녀학생 모두의 경우, 친구수는 자기보고 및 교사평가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괴롭힘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라 또래평가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덜 경험하였다(t=3.90, p<.001). 그러나, 자기보고와 교사평가에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학생에 있어서는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라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의 역할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가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예측변인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앞서 제시한 상관관계 분석에서와 같이, 또래평가와 교사평가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에도, 남학생은 또래 거부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친구수 및 가장 친한 친구 유무의 경우에도 매개효과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변수간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결국 이러한 조건은 여학생의 경우, 즉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버지에 대한 애착, 그리고 또래 거부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자기보고)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이에, Baron과 Kenny(1986)의 모델에 근거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과 여학생이 경험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에 또래 거부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 거부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아버지에 대한 애착(β=-.20, p<.001)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β=-.19, p<.001)은 모두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또래 거부가 부모에 대한 애착과 여학생이 경험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 의

또래관계적인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온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또래관계 뿐만 아니라 부모 - 자녀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주 보고되는 연령층인 청소년 초기의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비롯한 또래 거

부와 우정관계가 청소년이 경험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먼저, 부모에 대한 애착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덜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원만한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예: Maccoby & Martin, 1983; Ryan et al., 1994)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경우, 부모는 자녀가 또래관계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민감하고 반응적인 방법으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한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결과들(Kochenderfer & Ladd, 1998; Myron-Wilson & Smith, 1998)을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에 대한 신뢰감 및 소원감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 연구(Craig, Pepler, & Connolly, 1998)에서 초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예측 요인으로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애정, 친밀감 및 부모에 대한 소원감, 부모와의 갈등 수준 등이 보고된 점과도 일치한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가 여학생의 경우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양자간의 관계에서 뚜렷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양자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또래평가와 교사평가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경우에만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모두 자기보고 방식을 통해 측정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두 변수간의 관계가 과잉평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되어온 것처럼 연구변인들간의 관계가 평가자에 따라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평가자에 따른 차이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됨.)

또래 거부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 또래로부터 부정적 지명을 많이 받을수록 남녀학생들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거부를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관련되는 주요 변인으로 꼽은 Hodges와 Perry(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래 거부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통해, 또래들이 싫어하는 아동들은 곧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아를 더욱 더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가해아가 아닌 일반 아동들조차도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급우들에게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는 연구결과(Dodge, 1986)에 근거할 때, 가해아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피해아를 괴롭힐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또래집단내에서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래들이 싫어하는 아동을 괴롭힌다고 해서 주변으로부터 별로

제재를 당하지 않으리라 확신하고 피해아동을 괴롭힐 것이다. 한편, 양자간의 관계에서 자기 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또래평가나 교사평가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보다 또래 거부와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또래 거부가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자기 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제외하고, 또래 거부를 비롯한 또래평가 및 교사평가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 모두가 제 삼자에 의해 측정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스스로는 자신이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괴롭힘을 다소 약화된 정도로 지각하며, 그러한 정도가 남학생일 경우 더욱 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서, 남녀학생 모두의 경우 친구수는 또래평가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만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친구수가 많은 경우,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덜 당하는 것으로 급우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구가 없는 아동은 친구가 있는 아동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Bukowski, Sippola, & Boivin, 1995; Malone & Perry, 1995)과 일치한다. 또한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서 친구의 수가 중재적 역할을 한다는 결과(Hodges et al., 1997)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경험에서의 차이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적으로 나타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에 여학생들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덜 당하는 것으로 급우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우정관계 변인 중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인은 친구수 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있어서 친구수의 영향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으나 가장 친한 친구의 영향은 여아의 경우가 더 컸다는 연구결과(Berndt & Keefe, 1995; Wentzel & Coldwell, 1997)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정관계에서 친구수와 관련되어 흔히 잘 알려진 성차의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남학생은 다수의 친구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우정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여학생은 소수의 절친한 친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특성에 근거할 때, 남학생의 경우는 단 한 명의 가장 친한 친구의 유무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 또래경험과 관련이 없는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단 한 명이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지라도, 청소년기 우정관계와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 친구수나 가장 친한 친구 유무외에 친구의 특성과 필요시 함께 있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결과들(Berndt & Keefe, 1995; Bukowski & Hoza, 1989; Hartup & Stevens, 1997)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점은 하나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들의 매개적 효과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또래 거부나 우정관계를 통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청

소년기에 또래관계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들과는 불일치한다. 그러나, 학령전기나 아동기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라는 부적응적 행동특성에 있어서 애착의 중요성을 보고한 몇몇 연구들(Finnegan et al., 1996; Myron-Wilson & Smith, 1998; Troy & Sroufe, 1987)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기에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이 긍정적인 또래경험을 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를 통해 부모에 대한 애착을 비롯하여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는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괴롭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또래 거부나 우정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성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결과에서는, 또래 거부와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와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또래관계에서의 성차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친구수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서는 두드러진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특히 본 연구의 중요한 변인인 부모에 대한 애착은 성에 상관없이 청소년의 부정적 또래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평가자를 이용하기 위해 자기보고 뿐만 아니라 또래평가와 교사평가를 통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다른 연구변인들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부모에 대한 애착의 경우와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에서 평가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자기보고의 경우를 제외한 또래평가나 교사평가에 의해 측정된 경우에는 유의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측정하는 적절한 조사도구로서 자기보고 척도의 유용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들(도현심, 1999; Olweus, 1991)과 유사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또래 거부의 경우 또래평가나 교사평가에 의해 측정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점과 각 평가자간의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지만 유의적인 점에 근거할 때, 또래평가나 교사평가 척도의 타당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기초로, 후속 연구는 종단적 연구모델을 이용하여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지속성을 비롯하여, 관련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부모-자녀관계 및 또래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같은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국내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의 이러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피해아들의 또래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 연구는 그들이 학생들을 선도하는 데 지침이 되는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도 자녀의 긍정적 또래경험을 위해 부모-자녀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도현심(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박선영 ·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이점숙 · 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임경원(1997).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분위기가 청소년의 또래 공격성 및 또래회생성에 미치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rmsden, G., McCauley, E., & Greenberg, M., Burke, P., & Mitchell, J.(1991).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683-697.

Armsden, G., & Greenberg, M.(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Baron, R., & Kenny, D.(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1173-1182.

Berndt, T., & Keefe, K.(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12-1329.

Berndt, T., & Ladd. G.(1989). *Peer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Bukowski, W.,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J. Berndt & G.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15-45). New York: Wiley.

Bukowski, W., Newcomb, A., & Hartup, W.(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kowski, W., Sippola, L.K., & Boivin, M.(1995). Friendship protects "at risk" children from victimization by peers. In J.M. Price(Chair), *The role of friendship in children's developmental risk and resilience: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RCD, Indianapolis, IN.

Coie, J., & Dodge, K.(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Colin(1996). *Human attachment*. New York: McGraw-Hill.

Craig, W.M., Pepler, D.J., & Connolly, J.(1998).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ucture, family socialization, and school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P.K. Smith, W., Craig, & E. Hennessy(Chair), *Parenting and school bullying*.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SSBD, Berne, Switzerland.

Dodge, K.(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pp.77-126). Hillsdale, NJ: Erlbaum.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D. Parke, & G.W. L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77-10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Finnegan, R., Hodges, E., & Perry, D.(1998). Vic-

timization by peer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n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076-1086.

Gjerde, P.(1986). The interpersonal structure of family interaction sett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 in dyads and triad.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97-304.

Greenberg, M., Siegel, J., & Leitch(1984).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Hartup, W., & Stevens, N.(1997). Friendships and adaptation in the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121, 355-370.

Hauser, S., Book, B., Houlihan, J., Powers, S., Weiss-Perry, P., Follansbee, D., Jacobson, A., & Noom, G.(1987). Sex differences within the family: Studies of adolescent- and parent-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99-220.

Hodges, E., & Perry, D.(1999).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677-685.

Hodges, E., Malone, M., & Perry, D.(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Inderbitzen-Pisaruk, H., Clark, M., & Solano, C. (1992). Correlates of loneliness in mid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151-167.

Kinderman, T.(1993). Natural peer groups as contexts for individual development: The case of children's motivation in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70-977.

Kochenderfer, B., & Ladd, G.(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Kochenderfer, B., & Ladd, G.(1998). Linkages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 at home and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in school. In P. K. Smith, W. Craig, & E. Hennessy(Chair), *Parenting and school bullying*.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SSBD, Berne, Switzerland.

Ladd, G., Kochenderfer, B., & Coleman, C.(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 1181-1197.

Maccoby, E., & Martin, J.(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1-101). New York: Wiley.

Malone, M., & Perry, D.(1995). *Features of aggressive and victimized children's friendships and affiliative preferences*.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el meeting of the SRCD, Indianapolis, IN.

Myron-Wilson, R., & Smith, P.K.(1998). Attachment, parenting, and bullying. In P.K. Smith, W. Craig, & E. Hennessy(Chair), *Parenting and school bullying*.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SSBD, Berne, Switzerland.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pler and K.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Lawrence.

Perry, D., Kusel, S., & Perry, L.(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Rizzo, T.(1989). *Friendship development among children in school.* Norwood, NJ: Ablex.

Ryan, R., Stiller, J., & Lynch, J.(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Savin-Williams, R., & Berndt, T.(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S. Feldman & G.R.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Sullivan, H.(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Troy, M., & Sroufe, L.(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475-1488.

Wentzel, K., & Coldwell, K.(1997). Friendships, peer acceptance, and group membership: Relations to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Child Development*, 68, 1198-1209.

Wiggins, J., & Winder, C.(1961). The Peer Nomination Inventory: An empirically derived sociometric measure of adjustment in preadolescent boys. *Psychological Reports*, 9, 643-677.